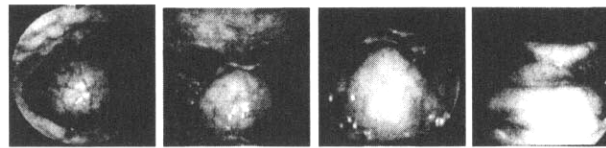


갑상선 억제요법에 의해 현저한 반응을 보인 설갑상선 1례

전남의대 강호철*, 강혜숙, 김정순, 홍세인, 조동혁, 정동진, 정민영

설갑상선 (lingula thyroid)은 가장 흔한 이소성 갑상선으로 전체 이소성 갑상선의 약 90%를 차지하며 종괴로 인한 호흡 및 연하곤란 혹은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흔하다. 모든 환자에서 갑상선호르몬제를 이용한 억제요법이 권고되며 종괴효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연하곤란이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 혹은 방사성요오드요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에서 기능을 하는 갑상선 조직이 설갑상선 단독인 경우가 많아 갑상선 조직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들은 설갑상선에 대한 표준치료인 갑상선 억제요법 단독치료를 현저한 설갑상선의 크기 감소를 보인 경우를 관찰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호흡곤란과 연하곤란을 주소로 내원한 19세 여자환자로 혀의 기저부에 풍부한 혈관을 갖는 분홍빛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갑상선 스캔 및 경부 CT상 설갑상선으로 확진되었다. 내원시 TSH 26.2 uU/ml로 갑상선기능저하 상태였으며 기도 폐색이 심하지 않아 갑상선억제요법 (levothyroxine 200 µg/day)이 시행되었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내시경상 종괴 변화는 그림과 같다.



Apr. 1999 Oct. 1999 Apr. 2001 Apr. 2003

설갑상선 치료에 있어 갑상선 억제요법은 필수적이며 갑상선조직을 보존하며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갑상선 우연종 환자에서 악성결절의 빈도 및 예측인자에 대한 연구

전남의대 강혜숙*, 강호철, 김정순, 홍세인, 조동혁, 정동진, 정민영

결절성 갑상선 질환은 가장 흔한 갑상선 질환이며 최근 갑상선초음파의 보편화에 의해 갑상선 우연종의 발생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악성종양의 선별 및 그 임상적 관리 측면에 있어 통일된 의견은 없다. 저자들은 최근 4년간 전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 갑상선 우연종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에서 갑상선 초음파 (US) 및 초음파 유도 갑상선 미세침 흡인술 (FNA)을 시행하여 축지되지 않는 미세 갑상선 결절에서 악성결절의 빈도 및 악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임상적 지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0 MHz 탐촉자를 이용한 갑상선 초음파가 모든 환자에서 시행되었으며 초음파 소견의 특징 및 FNA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506 명 환자 (남:녀=1:6.8)의 평균연령은 48.1 ± 12.0 세(범위: 16-80)였으며 FNA상 46명 (9.1%)에서 악성종양이 진단되었다.
- 2) 환자의 연령 및 성별은 악성종양과 관련이 없었다.
- 3) 갑상선 초음파상 악성종양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갑상선 결절의 에코발생도 ($p=0.019$)와 석회화 유무 ($P < 0.001$)였으며 저에코성 결절 및 석회화된 결절에서 악성종양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 4) 갑상선 초음파상 결절 변연의 특징, 결절 주변부의 halo 유무, 경부임파절비대 유무, 결절의 수 및 크기는 악성종양과 관련이 없었다.

축지되지 않는 갑상선 우연종에서 악성결절의 빈도는 9.1%로 축지되는 결절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초음파유도 미세침 흡인술을 이용한 적극적인 검사가 악성여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하며 고위험군 선별에 있어 갑상선 초음파 소견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